|  |  |
| --- | --- |
| Logo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Amazonas capital Manaus, hit hard by the pandemic, is suffering from a  shortage of medical oxygen. Its remoteness and poor infrastructure are  partly to blame. - Washington Post | **이경승 정다운(한결 한별 한솔) 소개편지**  2022년 7월  이경승 [mkgeneration1@gmail.com](mailto:mkgeneration1@gmail.com) katalk ID: kloan1  정다운 [akumcss@gmail.com](mailto:akumcss@gmail.com) katalk ID: dawoon.jeong  R. Vila Amazonas 488 Apt. 502, Bloco C, N. S. das Graças, Manaus – AM, BRAZIL, CEP 69057-240 |

A family posing for a photo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medium confidence안녕하세요.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사역하는 이경승(41), 정다운(40) 선교사입니다. 저희에겐 세 자녀, 이한결(12), 이한별(7), 이한솔(5)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양가부모님들께서는 1세 선교사님들로써 이경승선교사의 부모님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31년동안 선교사역을 해오신 이성전, 고 이신숙 선교사님이시며, 정다운선교사의 부모님은 파라과이에서 30년동안 선교사역을 해오신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부부는 각각 10세의 나이로 부모님을 따라 각 가정의 선교지에서 MK(선교사자녀)로 자라 현지언어(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와 문화에 능숙합니다. 이경승선교사는 미국 보스턴 Gordon College에서 경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아틀란타 에모리대학에서 MBA석사를 마친후 11년동안 금융계 투자회사와 은행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12년동안 청소년부 전도사로 미주한인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정다운선교사는 한국 총신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기독교교육석사(상담)를 마치고 8년동안 영.유아.어린이부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브라질 아마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는 작년 1월, 어머니 고 이신숙선교사님이 아마존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소천하시면서입니다 . 저희 부부는 2018년 12월, 선교단체소속 없이 단기 자비량 선교사로 파라과이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선교 단체 소속의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장기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020년 1월, GP(Global Partners) USA 선교단체에서 첫 인터뷰를 가졌고 18년의 미국이민생활을 정리하고 공식 장기 선교사가 되는 첫 걸음을 내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인터뷰를 통해 저희 파송교회인 아리조나에 위치한 십자가의 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그 다음달인 2월에 인사차 아리조나 십자가의 교회를 방문하여 두달간 지내며 성도님들과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코로나는 중국에서 온 세계로 팬대믹이 되어 퍼졌고 결국 4월 예정이였던 선교훈련이 취소 되고, 당시 저희의 선교지였던 파라과이 국경도 폐쇄가 되어 선교지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리조나에서의 생활은 두달이 넉달이 되었고, 넉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아리조나에서 파송교회의 많은 사랑을 받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가 항상 염려에 두었던 것은 열악한 선교지에 계시는 양가 부모님이셨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은 그 당시 아직 국경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파라과이는 국경은 계속해서 닫혀있어 혹시라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신다면 저희 부부중 한명이 파라과이에서 가장 가까운 브라질 국경까지 간 후 강을 건너 파라과이로 들어가겠다는 계획까지 나름대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동안 양가 부모님은 건강하게 계셨지만 2020년12월26일 저희가 두려워하던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 계신 아버지께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양성판정이 나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파송교회 목사님과 상의하여 이경승선교사는 부모님이 계신 선교지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티켓을 끊은지 3일만인 2021년 1월1일, 아슬아슬하게 선교지 아마존 마나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니 많은 병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상태였고, 이경승 선교사는 호흡곤란이 온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한 병원을 찾아 입원을 하실수 있게 되었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여 보호자인 이경승선교사가 병실에 함께 들어가 입원하며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입원 후 14일 후 회복하셨고 퇴원을 하셨지만 여러차례 코로나 환자 무리들과 어울려 입원절차를 밟아야했고 아버지를 간호하며 함께 생활하던 이경승선교사는 코로나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어머님 또한 증상이 시작되셨고 아버님때와 똑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병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던 병원은 waiting list가 너무 길어 어머님은 다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병실에 어머님의 보호자로 들어갔을 때엔 이경승선교사 또한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입원한지 이틀만에 어머니는 항생제가 듣질 않고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이경승선교사 또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승선교사가 입원한지 이틀 후,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폭풍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경승선교사는 입원한지 10일만에 퇴원하여 부모님이 계시던 선교센터에 돌아오니 그제서야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게되었고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셨구나’라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질때로 약해져 있는 상태로 텅 빈 선교센터에서의 이경승선교사는 혼자 격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격리 시간속에서 많은 생각의 시간과 함께 여러 고민들과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성격이 밝으시고 현지인들과 주변 선교사님들을 챙겨주시던 어머니가 안계시면 내성적인 성격의 아버지가 혼자 어떻게 사역을 하시지? 당뇨와 코로나로 약해지신 아버지를 누가 어떻게 보살펴 드리지? 만약에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거나 선교지를 떠나시면 현재 선교지에 있는 미자립교회들은 어떻게 되며 31년간 헌신하신 이 사역들은 하루 아침에 수포가 되는 것인가?’. 이제야 파라과이 장기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훈련 과정을 시작한 우리 가정에, 코로나로 앞길을 막으시고 어머니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멈춘 상태였고,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물질주의와 세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었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에서의 미래와 소망이 없어보였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계신 한국선교사님들이 고령화 되시고 계시며 노후나 후임 대책도 없는 현실을 보며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절망속에 빠진 이경승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경승아 선교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니? 31년동안 헌신한 너희 부모님이니? 지금까지 선교지를 지킨 선교사들인것 같니? 아님 한국교회가? 자금이 많은 미국교회가?” 그리곤 이렇게 대답해주셨습니다. “아니다. 선교는 나의 것이다.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MK인 이경승선교사의 어깨와 가슴을 억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사르르르 없어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경승선교사가 코로나에서 회복한 후 한국에서 다시 진행된 선교훈련을 모두 마치고 2021년 11월 09일 선교파송지를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바꾸어 GP 2차 허입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저희 가정은 마나우스 선교지 땅에 첫 발을 내딪었습니다. 역시 아마존이라 아이들의 온 몸이 금세 모기 물린 자국들로 가득해졌습니다. 한달동안 31년을 선교지에서 섬기신 이경승 선교사의 부모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아마존 선교지를 순회했습니다. 8개의 교회사역, 빈민촌사역, 그곳에 세워진 2개의 학교들, 강변마을사역, 병원선사역, 그리고 인디언마을사역 등. 방문하는 곳마다 이경승 선교사가 자라며 추억이 꽃핀 곳이라 저희 가족에겐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씨를 뿌린 곳에 씨앗들이 잘 자라 결실을 맺은 곳도 있고, 상처와 흉터가 깊은 곳도 있습니다. 웃어야 할 곳도 있고, 울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사역지를 순회하며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매일 매일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을 보며 너무 벅차기도 하며 저희의 모습이 초라하고 작아질때도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으셔서 이렇게 많은 씨를 뿌리신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더 커져가는 동시에, 2세로써 부모님께서 이루신 사역들과 이 기초를 사용하여 앞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는 저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한 영혼들에게, 마약과 폭행으로 찌들린 빈민촌에, 가난에 허덕이는 강변마을에, 복음을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인디언부족에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는 커다란 기도제목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경청하고, 배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솟는 물가와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해 도둑이 어두운 새벽에 무찌렁 학교 전깃줄을 끊어서 훔쳐갔습니다. 구리로 된 전깃줄이 1kg당 10불정도 한다는데 생명을 무릅쓰고 지붕을 타고 올라와 고압 전선을 잘라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루미늄으로 된 지붕에 비가 새어 새로 바꾼지 얼마 안 되었는데 도둑이 그 새 지붕을 밟아 찌그러져 비가 오면 다시 물이 새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2천불 정도 드려 지붕 및 페인트, 철장 공사를 하였는데, 몇일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힘이 빠집니다. 아이들도 전기가 없어 이틀동안 수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차 지붕 공사를 마치고 1주일 후 똑같은 방법으로 보란듯이 다시 고압전선을 끊어 빼간것입니다. 50불정도 되는 금액을 위해 천불 이상되는 손해를 일으키고 목숨을 거는 이 영혼도 불쌍하지만 과연 이런 미래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같은 시기 학교사무실 벽에 붙어 있던 타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이 넘은 건물이라 보수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이틀동안 허탈한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다시 마음을 추수리고 보수공사와 보안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찌그런진 지붕을 또 한번 고치고, 물이 새는 곳을 다시 막고, 철조망을 보수하고, 보안 카메라까지 달았습니다.

선교지에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세 선교사로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1세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갈 때 코로나로 인해 어쩔수 없이 2년 이상 운영이 중지되어야만했던, 그럼에도 매달 들어가는 경비와 유지비로 지출이 많은 병원선 그리고 기도원과 같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었으나 건축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선교지로 들어온 작년부터 정부는 학교 건물을 정부 기관 교육 건물 건축 기준에 맞추어줄것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변화와 공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끝없는 지출이 요구되는 이 모든 사역들을 빨리 정리하는게 현명한 것인데 이 사역들이 부모님께서 몇 십년동안 땀 흘리시고 고생하신 사역들이기에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립되게 하여 지속적인 사역이 되도록 하는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곳에 부르신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 내린 후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비취듯이 어둡고 답답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현지교회 사역을 통하여 위로를 하여 주십니다. Bruno라는 청년이 무균성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마나우스 교회에 뜨거운 기도운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몇 일 동안 이어진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 지금껏 몰랐던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빈민촌에 세워진 생명샘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폐렴으로 고생했던 중풍환자 찌아고가 긴 싸움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비틀어진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청순한 웃음을 지었던 찌아고가 그리울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며 오랜 간호로 지쳐있고 슬퍼하는 찌아고의 부모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식 후 몇 일 뒤 온 교회는 더 하나가 되어 강단, 화장실, 그리고 부엌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였을 당시에는 벽이 없는 지붕뿐이었는데, 교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건축을 해내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이란두바와 강변마을을 맡고 계시는 헤니우다 목사님은 2월부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생긴 폐렴을 마나우스에서 거주하며 치료중에 계십니다. 약해져 있는 면역기능과 체력을 당분간 충분한 쉼으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두바 사역지가 한달 가까이 비워있는데 목사님의 회복과 사역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초에는 버스로 14시간 이동하여 베네주엘라-브라질 국경에 위치한 보아 비스따를 방문하여 베네주엘라 난민사역을 돌아보고 난민대상으로 3일동안 열린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 2016년부터 90만명정도 되는 베네주엘라 난민이 거쳐갔다고합니다. 2009년부터 마나우스에서 함께 동역하던 아우구스또 목사님께서 2018년부터 이 지역에서 거쳐가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숙소뿐만 아니라 요리와 목공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는 음악도 가르치며 브라질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올해 후반기에는 저희 네일 아트팀을 마나우스에서 보내 난민들을 가르쳐 사업창출에 도움을 주려합니다. 마나우스 빈민촌 교회들과 보아 비스따 교회를 위한 네일 아트 교육 통한 직업 창출 프로젝트 비용이 $3,000정도 예상되어집니다.

코로나로 2년동안 정지되어 있던 병원선이 6월부터 다시 운행될 예정입니다. 21년된 선박이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년 페인트칠 뿐만 아니라 엔진과 내부화장실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병원선 사역을 위해 2억정도 되는 새로운 병원선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비영리단체를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4월과 5월 협력 유럽/미국 파트너들 및 미국 동부 브라질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방문하여 여러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잘 채워지고 6월부터 브라질 곳곳에서 오는 의료 자원봉사팀들과 함께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빈민촌에 세워진 학교들도 자립형모델로 가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정부 건물 지침서 요구에 필요한 설계와 보수공사, 그리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부와 협력관계를 맺어 그 빈민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마나우스시 외각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란두바센터를 토대로 아마존 남쪽 강변마을과 인디언부족에 복지서비스와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로 인해 2년동안 중단 되었던 병원선을 통해 아마존 동쪽 강변마을과 인디언부족에 의료서비스와 복음사역을 가동하려합니다. 마나우스 중심지 아드리아노뽈리스에 위치한 마나우스교회, 메또지스따 무브먼트교회, 썽 조르지에 있는 중앙교회를 통하여 브라질 중산층과 부유층의 다음세대들을 발굴하여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계선교를 이끌어가는 선교운동이 될수 있도록 큰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나, 허락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으로 두렵고 떨릴지라도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MK로서 부모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선교지로 저희 가족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 선교지 사역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주십시요.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이경승, 정다운, 이한결, 이한별, 이한솔

***브라질 아마존 선교사역을 위해 물질로 함께 동참하시려면…***

**한국 : 하나은행 990‐194764‐156 예금주: GP (이경승, 정다운)**

**[한국 후원자 등록 안내]**

선교회 자료 안내, 연말정산등록, 후원영수문자 수신 등을 위한 후원자 정보등록을

아래의 사이트에 부탁드립니다.

[**http://gpinternational.org/gp\_donation**](http://gpinternational.org/gp_donation)

**미국 : Check - Pay to the order: GP USA (Check memo: Kyung Lee/Da Woon Jeong)**

Address: 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USA 92804

**PayPal or Smart Pay donation is available at** [**https://www.gpusa.org/m-donation**](https://www.gpusa.org/m-donation)

(Please write Kyung Lee, Da Woon Jeong in “Selected Missionaries.”)